

틸러슨의 파격 제안, 트럼프도 동의했을까

美, 北 탐색전 필요성 느껴 60일간 '도발 휴지기' 전제 양측 '물밑 교감' 가능성도



린 '폴리시 익스체인지' 주최 행사에서 "모든 나라가 유엔결의를 넘어서는 일을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 안보팀 최고위 인사들의 이러한 언급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분한 교감 아래 나온 제안인지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급인 화성 15형을 쏘아 올려 핵무력 완성을 목전에 두는 등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중대 분수령을 맞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틸러슨 장관이 전격적으로 이 같은 대화 제의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틸러슨 대통령이 12일 간의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잡지 못한 교착 상태를 해결하려면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비핵화 의지 표현'이나 '핵개발 동결' 등 미국이 대화의 전제 조건을 고집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은 "(핵·미사일) 프로그램들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先) 대화 재개-후(後) 비핵화 로드맵 성안'의 구상을 이날 밝힌 것 역시 직접 대화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지 않고서는 비핵화를 위한 진전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 장관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전까지 북한의 지도자와는 다른 유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북한의 상황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점을 지적한 것 역시 조건없는 대화 재개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레토릭으로 보인다.

그는 "김정은은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확실히 다르다. 우리는 김정은과 대화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지 모른다. 나는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은 또 오랫동안 관계가 단절됐던 미국과 북한 모두 본격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서로 탐색전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북한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이 '전제조건 없는 첫 만남'을 언급했음에도 전혀 기본적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북한이 일정 기간 핵 실험이나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거듭 강조했다. 최소한의 '도발 휴지기(quiet period)'는 필요하다는 얘기다.

틸러슨 장관은 "만약 대화 도중 시험이

나 추가 도발을 한다면 대화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화를 하려면 일정 기간 휴지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중단 기간을 밝히진 않았지만, 워싱턴 조야에서는 60일 이상 도발이 없어야 대화 가능하다는 것이 이른바 '틸러슨 구상'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앞서 자정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 NHK와 만나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자 대사의 '조건'이 '핵 보유국' 인정을 의미한다는 관측이 많지만, 양측이 그간 뉴욕채널 등 물밑채널을 통해 대화를 위한 상당한 교감을 형성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미국 언론들과 중국 언론들은 틸러슨 장관의 이 같은 제안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해 '유연한' 입장으로 변화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편,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과 관련해 애매모호한 성명을 내놨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바뀌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위험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日 법원, 이카타 원전 재가동 중단 명령

일본 법원이 대형 지진의 우려가 큰 지역에 있는 에히메(愛媛)현 이카타(伊方)원전에 대해 가동 중단을 명령했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재판장 노노우에 도모유키)는 이날 히로시마 지역 주민들이 시코쿠(四國)전력 이카타 원전 3호기에 대해 신청한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1심 법원인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지만, 상급법원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 후 내년 1월 가동을 재개할 계획이던 이 원전은 예정대로 재가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카타 원전은 대형 지진이 날 가능성이 높은 난카이(南海) 트로프(해저협곡)에 위치해 있다. 난카이 트로프는 30년 이내에 규모 8~9급의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에 이른다는 예측이 나온 곳이다.

특히 활성단층으로 불리는 '중앙구조선 단층대'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있어 원전이 소재한 에히메현뿐 아니라 히로시마와 아마구치(山口) 등 인근 지

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반(反)원전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현재 히로시마 외에도 마쓰야마(松山), 오이타(大分), 아마구치의 법원에서 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이 각각 제기돼 있다.

원고인 주민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는데 활용하고 있는 '신규제기준'이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의 원인 해명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만들어진 까닭에 원전의 안전성 확보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뒤 '원전 제로'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2012년말 정권을 되찾은 자민당의 아베 정권은 원전의 안전성 등을 규제하는 '신규제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하는 원전은 다시 가동시키는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고 있다.

이카타 원전 3호기 역시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지만 신규제기준을 통과한 뒤 작년 8월 재가동을 시작했었다. /연합뉴스



불타는 옥일기 중국 난징대학살 80주년을 맞아 13일(현지시간) 홍콩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자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얼굴이 그려진 옥일기를 불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면적 1.6배 불태운 美 캘리포니아 산불...9만명 대피·집 1000채 전소



미국 캘리포니아 남서부에서 잇달아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2주째 번지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LA) 북서쪽 벤추라 인근 토머스 산불로 전소한 가옥이 1000채를 넘었다.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소방당국과 CNN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가장 먼저 발화한 토머스 산불은 벤추라부터 인근 휴양지 오하이, 샌타바버라 인근 몬테시토 등을 태우면서 피해 면적이 23만4000 에이커(약 947km²)에 이르고 있다. 뉴욕시 전체 면적보다도 크다.

벤추라 인근 지역에서 대피한 주민은 9만3000여 명으로 파악됐다. 벤추라에서는 전체 시민 절반 이상이 대피했다. 진화율은 여전히 20%에 머무르고 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앞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화마와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전날부터 건조한 산터에 강풍이 다소 잦아들면서 진화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토머스 산불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산불 가운데 역대 5번째로 큰 규모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이번 주중 바람이 시속 35~70km로 불어 최고 시속 130km를 기록했던 지난주보다는 산불 확산의 기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벤추라 이외에 LA 북부 실마 카운티와 서부 부촌 벨에어, 샌디에이고 인근 본살 지역 등에서 발화한 크리·스커블·라일락 산불은 90% 이상 진화율을 보이면서 대부분 꺼졌고 복구 작업이 시작됐다.

CNN은 "캘리포니아 남서부에서 일어난 6개 대형 산불로 불에 탄 면적은 뉴욕과 보스턴을 합한 면적보다 크고, 싱가포르 전체 면적에 맞먹는다"고 전했다.

소방관들은 24시간 또는 36시간 맞교대로 화마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스 힐튼 등이 대피한 벨에어에 이어 연예인·방송인이 많이 거주하는 샌타바버라 인근 몬테시토에서 스타들의 대피 행렬이 이어졌다. 이 지역에는 오프라 윈프리, 제프 브리지스, 드루 배리모어 등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로브 로는 마스크를 쓴 채로 가족과 함께 대피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연합뉴스

'난징 대학살 80주년' 중국 전역 추모 열기

13일 일본군이 자행한 난징(南京) 대학살 80주년을 맞아 중국 전역이 추모 열기에 휩싸였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쑤(江蘇)성 '난징대학살 희생 동포 기념관'에서 열리는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식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 당정 주요 지도자가 대거 참석한다.

올해로 4회를 맞는 난징대학살 국가추모일 기념식이 시 주석이 참석한 것은 2014년 첫 행사 이후 3년 만이다. 2015년 2회 추모식에는 리젠궈(李健國)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2016년 3회 추모식에는 자오러지(趙樂際) 당시 중앙조직

부장이 최고위 당국자로 참석했었다. 시 주석은 이날 동아시아 침략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 내 움직임에 비판하면서 역사를 지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중일 양국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로 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노영민 주중 대사가 국가 추모일 기념식에 참석한다. 난징대학살은 중일전쟁 당시 1937년 12월 13일부터 1938년 1월까지 국민당 정부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했던 일본군이 3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중국 정부는 2014년 2월 입법 형식으로 매년 12월 13일을 난징대학살 희생자 국가추모일로 정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공·경매 교육안내

저희 공·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주)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경매 실전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
2. 장소 : 본 중개법인 강의실
3. 교육내용 :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경매 과정
4. 대상 : 1) 공인중개사 2)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수강료 및 교재대는 실비로 함
6. 강사

- 1) 본 법인 이사
- 2)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과정 겸임교수
-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매수신청교육 교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